


**공동체 소식**



## 연중 제 27주일

하느님,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둘이 결합하여 사랑으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어,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지 못하게 하셨으니, 성령의 힘으로 아담의 자녀들을 다시 거룩하게 하시어, 그들이 서로 신의를 지키게 하소서.

■ 10월 기도지향

- 문석찬 요셉, 문문주 엘리사벳 가정
- 김도영, 박희영 카타리나 가정

■ 10월 구역별 모임

- 1구역 : 10/10(토) 저녁 7:00 안혜진 임마쿨라따 닉
- 2구역 : 10/09(금) 저녁 7:00 박희영 카타리나 닉
- 3구역 : 10/09(금) 저녁 7:00 김정희 스킴라스티카 닉

■ 맨하탄 공동체 미사

- 일시 : 10/10(토) 오전 11:30

■ 주일학교 공지

- 이번 주일은 야외행사가 있는 관계로 주일학교 수업을 야외에서 합니다.  
(평상시; 초등부 교리-주일 오전10:00, 회관.  
중등부 교리-주일 오전10:00, 성당지하)

■ 교무금에 대하여

교무금의 부담은 신앙인의 기본 의무이며 신앙인이 받는 축복의 근원입니다. 어려운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월 평균 25가정이 교무금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물 한 모금의 정성에도 보답하시는 은총으로 축복합니다.  
(말라3,10 “ 너희는 십일조를 모두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양식이 넉넉하게 하여라. 그리고 나서 나를 시험해 보아라. —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내가 하늘의 창문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넘치도록 쏟아 붓지 않나 보아라.” )

■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77	211	180/153	271

■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항 복사
금주	문호진 안토니오	
	정예찬 미카엘	
차주	문호진 안토니오	정병훈 보니파시오
	문예나 요안나	정예찬 미카엘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김주연 세실리아	김대연 요셉 장보혜 프란체스카
차주	김명은 안젤라	김정원 베드로 김말자 세실리아

■ 애찬 봉사자

금주	박혜정, 정연숙, 장남순
차주	최선윤, 김계숙, 조정희

■ 헌금 봉사자

금주	문문주 엘리사벳, 고영방 스테파노
차주	박희영 카타리나, 이우영 가브리엘

■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체	헌금	교무금
<b>9/27</b>	84명	371불	1150불
조지연, 김호원, 류기범, 박동희, 김대성(총 5세대)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만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 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 회 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 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27주일이며 군인 주일입니다. 인간을 고귀하게 창조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군인들의 노고와 헌신이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군인들이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그림 묵상**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아기의 영혼은 하느님께서 만드신 순결 그 자체입니다. 할머니가 손주들을 사랑할 때 조건없는 사랑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미약하나마 감지하곤 합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사랑 그 자체로 베푸시는 축복의 순간에는 꽃향기로 가득합니다.

정미연 소화대레사

**제 1 독서 :**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2,18-24 < 둘이 한 몸이 된다. >

**화 답 송 :** 

주 님 께 서 우 리 에 게 한 평 생 모 든 날 에 복 을 내 리 시 도 다

○ 복되어라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그도를 닦는 자는  
수고의 열매를 먹고 살리니 너는 복되고 모든 일이 잘 되리라. ◎

○ 너의 집 안방에는 네 아내가 마치도 열매 푸진 포도나무인 듯  
너의 상 둘레에는 네 자식들이 마치도 올리브의 햇순들 같도다. ◎

○ 옳거니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렇듯이 복을 받으리이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내리시어 한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하시기를 바라노라. ◎

**제 2 독서 :**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2,9-11  
< 사람들을 거룩하게 해 주시는 분이냐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이나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습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느님이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분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리라. ◎

**복 음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0,2-16<또는 10,2-12>  
<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



### 좋은 결혼은 이 세상에서의 천국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님은 이혼(離婚)을 엄격하게 금하십니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약속 그 이상입니다. 집안과 집안의 결합입니다. 불교에서는 인연(因緣)이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부부의 인연을 맺기 위해서 영겁(永劫)이라는 세월의 전생을 거쳐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영겁이란 사방십리에 거자씨를 뿌려놓고 하늘나라 선녀가 3년마다 한톨씩 집어가서 모두 거두어가는 어마어마한 세월을 뜻합니다. 말하자면 부부의 인연이란 기적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왜 하필 당신일까? 다른 시대에 태어날 수도 있고, 같은 시대라도 만날 수 없는 지역에 태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은 '인연'이라는 말 대신 하나님의 '섭리(攝理)'라고 말합니다. 그 만남을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풀 수 없습니다. 이를 '혼인의 불가해소성'이라 합니다.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마태 19,5-6)

결혼은 분명 행복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결혼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혼하는 당사자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좋은 결혼은 이 세상에서의 천국이요, 나쁜 결혼은 이 세상에서의 지옥"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천국을 위해서는 둘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결혼은 준비하지 않고 결혼식만 준비하는 오늘의 세태가 안타깝습니다. 혼인성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들려주는 송나라 여인의 아름다운 시가 있습니다. "찰흙 덩이로 나의 모습을 빚고, 당신의 모습을 빚습니다. 그것을 한데 짓눌러 뭉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찰흙 덩이로 나의 모습을 빚고 당신의 모습을 빚으면 내 안에 당신이 있고, 당신 안에 내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시입니다.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짓눌러 뭉개지는 아픔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결혼은 이 세상에 사는 인간들에게만 허락된 특혜입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도와주는 ME는 가르칩니다. 이 세상의 천국이 되는 결혼을 위해, '대·성·공·기' 곧 대화와 성(性), 그리고 기도와 공동체를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국가가 바로서기 위해서 가장 기본은 가정이 제대로 서야 합니다. 일찍이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말은 통치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우리 국가에,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해당됩니다.

둘이 함께 한 평생을 산다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는 두 번 기도하며, 결혼할 때는 세 번 기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결혼의 삶이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이 쉽지 않다고 이혼을 허락하는 일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혼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상당히 많습니다. 당사자는 물론, 그 자녀와 가족들에게 커다란 상처가 됩니다. 그 아픔을 견디지 못해서 발생하는 사회 문제도 심각합니다.



- 조규만 주교 | 서울대교구 총대리 -



### 마술사 시몬

사마리아의 한 도시에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술사는 점쟁이처럼 미래를 예언하거나, 때로는 말이나 행동으로 병을 낫게 하기도, 병이 들게도 했습니다. 혹은 높은 데서 뛰어내리게 하거나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은 다른 이방인의 지역처럼 신화적 신앙과 마술 관습이 넘쳐나는 우상숭배의 이교적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 요즈음 사람들이 의사나 사제를 찾아가듯이, 당시 사람들은 마술사를 찾아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예언자들은 이방인의 마술 행위를 끊임없이 고발합니다. 예언자들은 마술사의 행위가 하느님을 거스르는 반종교적 행위이고 마술 행위는 헛됨과 기만이므로 끊임없이 고발했던 것입니다. 우상숭배 행위인 마술에 관해 알아보을까요?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2열왕 17,7-23

마술사 시몬은 사마리아의 백성들 사이에서 아주 인기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에게 주술을 걸어 병을 낫게 하고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고관들이나 서민들 모두 마술사 시몬을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필리포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기적을 행하자, 많은 이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술사 시몬도 그 소식을 접하고 필리포스를 찾아갔을 때 무엇을 보았나요?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사도 8,4-13

얼마 후 사마리아 지방에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시키는 대로 여러 가지 이상한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치유, 예언 등 많은 기적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 현상을 보자 시몬은 무엇을 청했고, 베드로 사도는 무엇이냐 대답했나요?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사도 8,14-25

신앙을 갖는 동기는 여러 가지입니다. 때로 자신의 욕심을 위해 신앙을 이용하는 예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갖는 동기가 불순하더라도 끊임없는 회개를 통해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느님의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시몬은 물질만능주의에 찌든 현대인에게 많은 교훈을 가르쳐줍니다.



- 글 어영업 신부 | 그림 임의준 신부 -



아이야! 보령  
아무리 욕심낸다 해도  
우리가 저 보름달만큼 채울 수 있을까?

아이야!  
노박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기다리면  
다 채워두신단다.

### 보름달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 있지 않다. (루카 12,15)

- 임의준 신부(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